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음 7월 15일)

제18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힘있게... 절도있게... 화려하게...

2017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4일 무주군 소재 태권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국기원 시범단원들이 절도있는 발차기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관련기사 9면>

새만금잼버리 정부차원 지원 약속

이낙연 총리 "국가 위상 높이고 전복발전 계기 될 것" 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내년 국가예산 확보 건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따라 특별법제정과 기반시설 조기구축 등 법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새만금 잼버리 행사부처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총리의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법 정부 차원 적극적 지원 지시에 따른 것이다.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는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 정부적 준비지원 체계 구축', '아영장 기반시설 조기구축', '세계스카우트센터 설치'를 위한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법 정부적 준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건의사항으로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성',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현장 개최'를 요청했다.

먼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행사시설 지원, 잼버리 특구지정 등 국가 지원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원이다.

또 세계잼버리 추진체계 구성은 잼버리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법안형태의 조지위원회 구성과 중앙부처 중심의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현장개최는 새만금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회(2009)를 제외하고는 새만금 현장 개최가 없어 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선정된 만큼 새만금위원회의 현장개최를 통하여 법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영장 기반시설 조기구축 2018년 국가예산 반영은 잼버리 행사 개최 전 부지조성, 하수도,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완공을 위해 2018년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용역비 146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안에 10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국비 전액 반영(146억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에도 전 세계 4천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방

문하고 항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글로벌청소년리센터(세계스카우트센터)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세계잼버리 유치는 국가의 위상(국격)을 높임과 동시에 전북(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 지난 8월 국무회의 여가부장관 보고 때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겠다"며 송하진 도지사의 대통령 직접 보고 지리도 언급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경쟁국 폴란드를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해 국제적 지위와 신뢰를 높인 것에 대해 여가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자들의 노고가 치하됐다.

한편 이 총리는 새만금 잼버리 현장부지 시찰과 함께 현재 새만금노출부지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조식료 식재와 관련, "축산농가 등에 산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6월 고3 수능모의평가 1~2학년 연합학력평가 실시

고교 3학년 수능모의평가와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6월 동시에 실시된다.

전북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가 이날 실시되며 도내 127개 고교(학원 6개 포함)에서 총 2만1,619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영역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이다.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도 같은 날 도내 110개 고교에서 2만여명 가량이 응시한다. /정해은 기자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5년간 54.1% 증가

민주당 김영진 의원 "민사 폭력피해도 지난해 200건으로 4년새 34.2%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가 1746명으로 5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직 및 공상자가 총 1746명(순직21, 공상17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순직 및 공상자는 2012년 292명(순직7, 공상285), 2013년 294명(순직3, 공상291), 2014년 332명(순직7, 공상325), 2015년 378명(순직2, 공상376), 2016년 450명(순직2, 공상448) 등 연평균 350여명에 달해 5년간 54.1% 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근무유형별 순직자는 구조활동이 1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진압이 8명(38%)으로 뒤를 이었다. 공상자는 구급활동이 419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진압 350명(20.2%), 교육훈련 181명(10.4%), 구조 174명(10%), 기타 601명(34.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 등 구조·구급활동보다 소방공무원을 더 다치게 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이었다. 공상이 아닌 민사 소방공무원 폭력 피해는 2013년 149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년새 34.2%나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증가 추세를 볼 때, 제도 개선에 상응하는 인식 개선 또한 필수적"이라며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민 의식 제고 방안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

8월 중앙공모사업 선정 국비 812억원 확보

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지역수요맞춤형 지원 등

전북도는 2017년도 8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완주·고창, 322억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정읍·진안·임실·순창, 76억원) 등 9개 사업이 선정, 국비 812억원을 확보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8월중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첫째, 지역발전 분야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완주·고창, 322억원),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정읍·진안·임실·순창, 76억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전주·정읍, 41억원)이다.

산림농정 분야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36.4억원),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15억원)이다.

또 일자리창출 분야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0.8억원)이다.

R&D·산업분야는 방사선융합 고효

율 약물전달 바이오패치 제조기술개발(국비 14억원), 고기능성 식물자원 및 양성자 빔 육종기술개발(국비 84억원), 방사선융합 농산물 유전자원개발·활용 및 국가중합관리시스템구축(국비 260억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9월에는 5건, 834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해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원광학원, 현 이사장 신순철 교무 유임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법인이사회에서 현 이사장인 곤산(坤山) 신순철 교무를 제12대 이사장에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제1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신순철 교무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한 원불교 성직자다. 신 교무는 지난 1982년부터 원광대 사학과 교수로 30여년을 재직했고 원광대학교 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원불교역사박물관 관장, 전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심의위원,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신 교무는 현재 원광학원 제11대 이사장이다. /뉴스



송영무 국방장관 "전술핵 배치, 하나의 대안 될 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우리는 어떠한 카드도 없지 않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전술핵 배치는 대안을 깊이 검

토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국당은 즐기치게 이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자 유일한 대응책은 공포의 균형 구축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했는데 확대해석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가 전술핵 배치도 요구하는데 정기간, 정례적 전략자산의 차이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주미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니 '전략핵을 요구한 것'이라고 나와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알합니다!

1614m 덕유산고랭지가 길러낸
안전한 먹거리 무주농산물!!

Organic

제3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11.3 금
11.5 일
2017.

주관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063)320-2841~2